■ 민주 전대 '컷오프' 누가 웃을까

10월3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 16명의 원내외 인사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민주당이 7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정세균 전 대표 정동영 손학규 상임고문 등 이른바 '빅3'를 비롯, 박주선 천정배 김효석 추미애 의원, 유선호 조배숙 양승조 조경태 의원이 전대 출마를 위해 후보로 등록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세균, 손학규, 조경태, 최재성, 추미애, 천정배, 양승조, 박주선, 김효석, 정동영, 백원우, 유선호, 이인영, 조배숙, 장성민, 정봉주. /연합뉴스

'빅3' 빼고 6장 티켓 놓고 예측 불허 경쟁

16명 예비후보 등록 중 9명 1차 통과… 1인 3표제 투표 이변 연출 가능성도

9일 실시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지도부 후보군에 대한 '컷 오프'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도전장을 던진 후보는 모두 16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이 1차 관문을 통과하게 된다.

특히, 정동영, 손학규, 정세균 등 '빅 3'의 본선 진출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6장의 '본선행 티켓'을 놓고 치열한 경쟁전이 펼쳐지고 있다.

◇**본선 티켓 조건**=일단 최소 50표 정도는 확보해야 본선행 티켓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70여명의 중앙위원이 1인 3표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전체 표는 1100표로 추산된다. 그러나 중앙위원의 투표 참석율이 70%대에 머무를 전망이어서 800표 내외가 최종 투표수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정동영, 손학규, 정세균 등 '빅 3'가 각기 100~150표 내외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나머지 400~500표를 놓고 나머지 13명이 치열한 경쟁전을 펼칠 것으로 관측되며 본선에 진출하는 9등의 커트라인은 40~50표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변' 연출되나**=1인 다표제마다 연출됐던 이변이 이번에도 재연될 것인지 관심사다.

일단 '빅3'가 나란히 1~3위에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지만 합종연횡의 양상과 부동표의 향배 등에 따라 이변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후보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있다.

특히, '빅3' 간에는 상대방이나 상대 진영 후보를 찍지 않는 배제투표가 적용될 전망이어서 이변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박주선, 천정배 의원 등이 3위권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빅4'를 자처하고 있는 박주선 의원은 구 민주계, 호남표 등의 지지를 내세워 3위권 진출을 별러왔고 천 의원은 쇄신연대 등 개혁성향 표 결집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한, 여성 주자인 추미애 의원의 본선 진출 여부와 486 주자들이 몇명이나 1차 관문을 통과하느냐도 관심사다.

◇**지역 후보**=박주선 의원은 구 민주계의 표심이 단단한데다 최고위원을 지내며 다진 기반 등을 고려하면 무난하게 본선에 진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효석 의원도 조직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지만 당내의 손꼽히는 정책통인데다 원만하고 합리적인 이미지에 따라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유선호 의원은 전남지역 중앙위원들의 표심과 김근태 전 의장 등 개혁성향 중앙위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다.

원외의 장성민 전 의원은 호남지역 중앙위원과 구 민주계 중앙위원들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컷 오프를 통과하지 못하는 지역 후보들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세균 "2012년 대권 꿈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정세균 전 대표가 8일 2012년 대선 출마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고 나섰다.

정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권에도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며 "대선에 대해서도 꿈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어떤 꿈을 이루는 것보다 2012년 민주당 정부를 만드는 것이 저의 더 큰 꿈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 제 꿈을 접어야 한다면 접을 것"이라면서도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그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10·3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한 전날 "대선 후보로서의 꿈도 있지만 당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개인을 희생할 마음가짐도 갖추고 있다"고 말한 것과 뉘앙스가 다른 진전된 발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 "세종대왕처럼 진보 실천"

당권 도전을 선언한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가 진보를 실천한 대표적인 모델로 세종대왕을 꼽았다. 한글을 만든 것 자체가 진보적인 생각을 실천한 사례라는 것이다.

그는 7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진보는 결코 구호만으로는 될 수 없다"며 "우리가 추구할 모델은 세종대왕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손 전 대표는 "한글창제만큼 진보적인 게 어디 있겠느냐"며 "정승, 판서 등 사대부는 글자가 필요 없다고 할 때 (글자 없어서 고생하는) 무지렁이들을 보면서 (한글을) 만들라고 시킨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사람 편에 서는 게 진보"라며 "측우기 등을 만든 것도 그렇다. 장영실이라는 천민을 데려다가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발명하지 않았나. 세종대왕이야말로 생각이 진보고 그것을 실천한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동영 "담대한 진보로 공정사회"

천정배 "민주당 통째로 바꾸겠다"

민주 당권 도전 출사표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8일 "담대한 진보로 진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10·3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고문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 개성과 노력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사회, 이것이 바로 진짜 공정한 사회의 모습"이라며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진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사회복지 부유세 도입을 제시하면서 "역동적 복지국가의 출발은 재원 확보로, 재원 대책 없는 복지는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정 고문은 또한 범야권을 향해서는 지역구도를 넘어선 '연합정치'를 제시하면서 "제3기 민주진보정부 수립을 위한 수권준비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국민과 당원 동지들 앞에 서게 된 것은 저의 지난 정치를 돌아보며 느낀 사무치는 책임감 때문"이라며 "과거에 대한 참회의 가장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방식은 새로운 도전을 통한 헌신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천정배 의원도 야권통합과 대선승리를 위해 "민주당을 하나부터 열까지 통째로 바꾸겠다"면서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10·3 전당대회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무능과 침체로 이끌었던 인물들이 민주당 대표가 되면 정권교체는 한낱 꿈에 그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 적임자로 자신을 꼽았다.

천 의원은 또한 '진보개혁'과 '선명야당' 노선을 표방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다시 세우며 재벌과 기득권층을 위한 특혜정책을 막고 4대강 공사는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젊은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협약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당원, 정책대의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5개월만에 외부활동 기지개

'과학대통령 박정희…' 출판기념회 참석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외부활동에 기지개를 켰다.

박 전 대표는 8일 오후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리는 '과학대통령 박정희와 리더십'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박 전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 행사나 전당대회 등이 아닌 순수 외부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4월 모교인 서강대에서 열린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정근모 전 과기부장관과 이상희 전 과기처장관 등 전직 과기부 장·차관들과 이공계 인사들이 포진한 '과학대통령 박정희와 리더십' 편집자문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날 행사에서 박 전 대표는 선친의 과학정책을 조명한 책의 출간에 사의를 표하고 국가 선진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발전이 중요하다는 평소 신념을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오는 15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대혈법)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에도 참석한다. 제대혈법은 박 전 대표가 지난해 6월 복지위에서 활동할 당시 발의한 제2호 제정법으로, 신생아의 제대혈(탯줄혈액)에서 나오는 조혈모세포를 이용해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이정일 전 청장 서구청장 보선 출마

이정일 전 서구청장은 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보다도 서구를 잘 알고 풍부한 행정 경험으로 서구와 광주 발전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민선 구청장의 경험을 살려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고 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청장은 "서구가 경제, 스포츠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과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공원 녹지 환경을 조성해 생태도시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또한 명문고와 특수학교, 영어 전문교육기관 등을 비롯한 세계를 향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호남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북구청장과 민선 1·2기 서구청장, 광주 YMCA 부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에 민주, 장향숙 전의원 추천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향숙 전 의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담당할 윤리심사자문위원으로 남윤인순 한국여성대표연합 상임대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윤기원 변호사, 최강욱 정한중 변호사 등 4명을 확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속촌(주) 무진주

갈비전문점 민속촌(주)와 보쌈전문점 무진주는 2011년 3월 1일 광주 상무점 개점을 앞두고 아래와 같이 본사관리자(경영지원부) 및 영업(써빙), 조리부 경력자와 신입직원 및 아르바이트를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모집직무	연봉	자격	특별 우대조건
본사/경영지원부	인사, 교육, 구매, 총무, 경리, 홍보 마케팅, 주차관리부분	면접후 결정	해당분야 경력자(업종불문) 및 초보자는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4년제 정규대학교 졸업자 (전공불문) • 외식산업(식당) 경력자 (한식, 양식, 일식, 중식, 패밀리 레스토랑, 기타 근무경력 모두 경력 가산점 인정) • 2년제 이상 대학 외식산업관련학과(외식경영학, 호텔조리학, 조리학, 식품영양학 관광학, 호텔경영학, 기타)졸업자 • 해당분야 자격증, 면허증, 수료증 소지자 우대
영업장/경영부서	점장	연봉 3천만원 이상	외식산업(식당) 근무 경력자 (한식, 양식, 중식, 일식, 패밀리 레스토랑 등 업종불문)	
	부점장	연봉 2천만원 이상		
	중간관리자	연봉 2천 3백만원 이상		
	영업장써빙직원	연봉 1천 9만원 이상	초보자 및 경력자	
	아르바이트	면접 후 결정		
조리부/생산부서	조리관리자 (주방장, 부주방장)	연봉 2천 6백만원 이상	조리사자격증 소유자로 외식산업(식당) 경력자	
	찬모, 밥모, 육부, 탕 냉면, 세척직원	면접 후 결정	초보자 및 경력자	

1차 : 서류 접수 기간 : 2010년 9월15일 (수) 17시 까지 • 전형방법 : 1차 -e메일로 만 접수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 (전공 및 주특기 소개 필수), 연락처기재, 지원부서 (희망연봉 기재)
2차 : 면접 전형 (1차 이메일 서류 합격자 개별 통보)
영업장 써빙(홀 직원)과 아르바이트 지원자는 이력서만 접수(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

문의 및 e-메일 접수 : focham@naver.com 문의전화 : 011-9766-3392
(이메일 사용법을 모르는 분만 전화로 상담합니다)

돼지갈비 전문점 민속촌(주) 광주광역시 동구 호남동 73-2
보쌈 족발 전문점 무진주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1-4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Daum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완비)

◆ 홀 : 연인, 친구, 가족(2인석, 4인석, 6인석)
◆ 소모임(룸) : 직장회식, 계모임(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대모임(룸)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DINNER	16:00~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